

## “미국이여 깨어나라” 제72회 국가 기도의 날 열린다

오는 5월 4일(목)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



2023 국가 기도의 날 준비를 위한 남가주 교계 지도자 초청 조찬 기도회 기념촬영 ©기독일보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에 미 전역에서 열리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맞아 올해도 남가주 한인들이 미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오는 5월 4일(목) 저녁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개최되는 국가 기도의 날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는 주제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고 더불어 회복을 간구하는 시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3 남가주 국가기도의 날을 준비하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는 미국이 당면한 영적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남가주 한인교회들과 단체들의 국가 기도의 날 참석을 독려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올해 국가 기도의 날을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한인연합 기도회로 삼을 계획이다.

기도회를 준비하는 송정명 목사는 “미국은 국가가 당면한 위기 때마다 기도를 요청해 왔다. 미주에 살고 있는 한인 성도들이 제2의 청교도가 되어 미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남가주 한인 교회와 단체가 올해 국가 기도의 날에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미국을 회복시키는데 한 모퉁이를 담당하자”고

당부했다. 강순영 목사는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미주 한인들과 차세대 한인 2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며 “회개와 간구를 통해 미국의 영적 부흥과 회복의 시간을 될 줄 믿는다”고 초청했다.

올해 국가 기도의 날 준비를 위한 남가주 교계 지도자 초청 조찬 기도회가 지난 15일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진행됐다.

조찬 기도회는 강순영 목사의 인도로 이병구 교수(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학장)의 개회 기도 후 김수희 권사(큐티 패밀리 미션 대표)가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박성근 목사(남가주 새누리교회)가 “보김에서 벨엘로”(삿 2:1-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성근 목사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성경을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 미국이 마치 하나님 지우기 운동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지금은 영광 가운데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언제 그 영광이 사라질지 모른다”며 “절대 진리가 없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미국은 세속적 욕망을 떠나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 팬데믹 중 예배 금지한 켄터키주, 법원 “소송비 지불하라”

미 항소법원, 예배 권리 침해 인정한 원심 유지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켄터키주 교회에 27만달러 이상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6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와 주정부가 2020년에 부과한 ‘대규모 집회 제한’과 관련해, 원고에게 27만 1420달러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원고인 T. J. 로버츠, 랜달 다니엘, 셸리 오보일 등 3명은 켄터키 힐뷰에 위치한 메리빌 침례교회(Maryville Baptist Church)의 교인이다. 이들은 2020년 4월 12일, 코로나 집합 금지에도 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고, 주 관계자로부터 “예배 참석 사실

을 알고 있으며, 경범죄 혐의를 포함한 향후 강제조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받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데이비드 헤일 서부지방법원 판사는 2020년 5월, 주정부에 메리빌침례교회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며 교인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후 베시어 주지사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제6순회 항소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수용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원고 측 변호사가 과도한 시간과 요금을 청구했고, 대면 예배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 일한 보수를 청구해선 안 된다”는 베시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방 법원은 소송 비



앤디 베시어(Andy Beshear) 미국 켄터키 주지사가 2021년 1월 신년 주정연설을 하고 있다. ©앤디 베시어 유튜브 캡처

용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은 재량권을 남용한 어떤 위험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며 “법원은 주지사의 주장을 고려하고, 증거와 교인들의 성공의 정도를 평가해, 타당한 소송비 지급 이유

를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한 명인 로버츠는 10일 자신의 트윗을 통해 “우리는 승리했고 예배의 권리를 확인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2020년 부활절 예배 참석 후 주 정부가 보낸 경고 문자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문자는 그에게 “주지사 및 정부의 보건가족서비스부 명령에 의해 금지된 대규모 집회에 당신이 참석할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 차량 탑승자와 접촉한 모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문자에는 “이 차량의 번호판은 기록됐다. 지역 보건부 직원들이 이 차량 탑승자와 가족 모두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동의서와 문서를 가지고, 이 차량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연락할 것”이라며 “합의 사항을 어길 시 추가적인 강제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유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 2023 국가 기도의 날

목사님! 성도 여러분! 국가를 위한 기도회에 초청합니다!

미국은 70여년 동안 국가 기도의 날을 지켜 왔습니다. 금번 국가 기도의 날(5월 4일)에는 4만 7천여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도회가 열릴 것입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남가주의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4월 30일(주일) 주간을 국가 기도의 주간으로 정하시고 교회에서 광고해 주시고, 수요일예배 혹은 금요일 기도회 혹은 주일예배시 미국, 대한민국, 한미 양국의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당일 헌금은 튀르키예 지진 복구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 일 시 : 2023년 5월 4일(목) 저녁 7시 (찬양 6시 45분)
- 장 소 : 나성순복음교회 (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 말씀 선포 : 진유철 목사
- 기도 인도 : 강태광 목사, 민경엽 목사, 이종용 목사, 박성규 목사
- 기도 강사 : 김은목 목사, 안현숙 목사, 김보라 목사, 심상은 목사, 김영구 목사, 허 준 장로, 김시온 목사, 오윤태 목사, 양경선 목사, 김재권 장로, 정우성 목사, 샘 신 목사
- 공동주관 :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나성순복음교회
- 공동주최 : 청교도신앙회복운동, JAMA, Soon Movement, 세기모(미주서부지부), KACC, 월드쉐어USA
- 협력단체 : 남가주 각 지역 교회협의회 및 목사회
- 협력교회 : 갈보리선교회, 감사한인교회, 기쁜우리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 새누리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샘물교회, 샘커뮤니티교회, 은혜한인교회, 예수로교회, 웅기장이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중현선교회, 코너스톤교회, 큰빛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평화교회
- 연락처 : 미주 성시화 운동 본부(213)662-2228

# 다민족지도자, 남가주 부흥 성지 순례 기도회 가져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운영위원장 강순영목사, 사무총장 강태광목사)는 지난 11일, 40여 명의 다민족 지도자들과 함께 남가주 부흥성지 순례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순례기도회는 오전 8시에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 모여 간단한 조식과 함께 개회 미팅으로 시작했다.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 모임은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시작하는데 헌신했던 데이빗 안드라디(David Andrade) 목사의 환영 인사, 운영위원장 강순영 목사의 기도회 일정 안내, 강태광 목사의 그룹 소개 그리고 울프강(Wolfgang)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오전 9시, 주님의영광교회를 출발한 순례 기도단은 빌리그레함 천막집회장소, 아주사

스트릿, 보니브레하우스, 그릿피스전망대, 할리우드제일장로교회 등을 거쳐 갈보리채플 순으로 이동하며 방문했다.

각 장소의 방문하면 6명의 다민족 리더들이 부흥성지 역사와 의미 설명, 합심기도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식사 시간과 이동 시간을 통해 각자의 사역과 비전, 그리고 다민족연합 기도대회에서 받은 은혜를 나눴다.

다민족 지도자들은 “이런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됐다”며 “캘리포니아 다민족 연합 기도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는 2023년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10월 초에 개최하기로 하고, 기도대회 준비를 위한 다



남가주 부흥 성지 순례 기도회에 참석한 다민족지도자들이 코스타메사에 있는 갈보리 채플을 방문했다.

민족 지도자 초청 조찬기도회를 8월 혹은 9 월 경에 갖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코너스톤교회 선교부장 김명덕(가운데) 장로(왼쪽)가 강태광 목사(오른쪽)에게 선교헌금을 전달하고 있다. 가운데 이종용 목사

## 코너스톤교회, 우크라이나 선교헌금 전달

코너스톤교회(담임 이종용목사)는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선교헌금을 전달했다.

이번 헌금은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현장을 매일 전해 듣는 World Share USA 강태광 목사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리며 이종용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코너스톤교회가 우크라이나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전하게 됐다.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선교비를 보낸 코너스톤 교회는 부활절을 보내며 부활의 기쁨을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것이다.

World Share USA(대표 강태광 목사)를 통해 전달된 선교헌금은 우크라이나 전쟁고아와 전몰장병 가족들의 생필품 지원 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코너스톤교회 이종용목사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나 관계하고 있는 선교사가 많지만 강태광 목사가 신실하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World Share USA를 통하여 지원하게 되었다”며 “도움이 필요한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의 모든 관심이 튀르키예 재난에 쏠

린 상황에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전쟁 초기보다 훨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저희가 튀르키예도 돕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참 어렵다”며 “잔인한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전몰장병 가족들이나 전쟁고아들이 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및 전쟁 피해 가족 돕기 문의 World Share USA (323 578 7933)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제8회 가정선교 세미나, 5월 6일 생수의강선교교회에서

미주 가정선교회(대표 이재근 목사)에서 주최하는 제 8기 '가정선교 세미나'가 5월 6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리토스에 위치한 생수의강선교교회에서 열린다.

미주 가정선교회는 “결혼의 신혼속도, 황혼이혼 급증, 동성혼, 성전환 문제, 마약과 도박, 가정폭력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가정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가정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는 곧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가정이 파괴 되지 않도록 가정을 지키고,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이 가정 선교의 목적이다.”

가정선교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며, 시대적 요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고, 모든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며 시발점이고, 세계선교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이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 내용 역시 '가정,



가정 선교, 가정문제 해결방안'을 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비는 일반 부부 50불, 목회자 부부 및 싱글 30불이며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이메일 (jaekunlee00@hotmail.com) 전화 562-714-0691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두란노 아버지학교 LA 110기,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LA 110기가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린다.

팬데믹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대면 모임이 이번 아버지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정은 4월 22일(토), 29일(토), 5월 6일(토) 오후 2-5시, 5월 7일(주일) 오후 4-8시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을 갖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1995년 10월 한국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8275차가 개설

되어 왔다.

이번 아버지학교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아버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가정의 머리로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도전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비는 교재와 유니폼 등을 포함해 120달러다. 온라인 (<https://forms.gle/tMGKD-CBL5LG7hmZw5>)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문의:(714)822-7126 황제필

김민선 기자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퍼!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메이저 리그 코리아인 특급 박찬호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 촬영을 알려드립니다.

# 위브릿지교회 연합, 튀르키예 복구 기금 전달

### 2만 726달러 김바나바 선교사, 3천 5백달러 월드쉐어 USA 사역 지원

본지가 주관하고 위브릿지교회가 연합해 마련한 튀르키예 복구 기금 전달식이 지난 18일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기금은 위브릿지교회들이 튀르키예 지역 지진 발생 이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 LA동부한인교회협의회도 부활절 연합예배 헌금을 튀르키예 복구 기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보내왔다.

이번 복구 기금은 총 2만 4천226달러가 모금됐으며 이 가운데 3천 5백달러는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를 통해 튀르키예 구호 기금으로 보내지고, 2만 726달러는 현지 김바나바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게 된다. 김바나바 선교사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튀르키예 주민들을 대상으로 텐트 보급 및 설치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필품 지원과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세계선교교회 김창섭牧사는 “튀르키예 주민들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곳의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하늘기쁨의교회 오충성 목사는 “우리가 보내는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이 늘어가고, 그곳의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주의 종들이 성장하게 되길 바란다”며 “위브릿지가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위브릿지교회 연합 튀르키예 복구 기금 헌금 전달식 기념촬영 ©기독일보

LA동부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송재호 목사(할렐루야교회)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는 연합이 중요하다. 위브릿지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모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란다”며 “적지 않은 기금이 모였는데, 모금에 동참하면서 동부지역의 교회들도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Acts Global Church 박은성 목사 “일본에서 살았고 사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진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너무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이 더욱 증거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랜초한인교회 정용암 목사는 “위브릿지교회의 동역사역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뜻깊은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놀라

운 일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브릿지 사역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네팔과 이집트의 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다. 위브릿지 사역이 끝나는 3년 후에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카마리오 열방교회 권혁래 목사는 “위브릿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섬김을 위해 택하셨다”고 믿는다”며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한인들의 연합과 섬김을 통해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미주 CBS 대표 한기형 목사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며 사역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의 사랑과 구제 손길이 튀르키예로 뻗어나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

했다.

이번 기금 모금에는 Cross Church(담임 정하이 목사, 100달러), Always New Church(담임 강은덕 목사, 340달러), 성암교회(담임 김요한 목사, 800달러), 주님의 숲 교회(류연주 목사, 250달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성일교회 담임 이석기 목사, 300달러), 생명의 길교회(담임 곽태규 목사, 300달러), 남가주 예수사랑교회(담임 오상규 목사, 2,090달러), 은혜샘교회(담임 표희곤 목사, 300달러), 놀워장로교회(담임 차권희 목사, 400달러), 커넥션교회(담임 류광환 목사, 1,010달러), 예심교회(담임 정찬균 목사, 1,500달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담임 양국민 목사, 500달러), 섬김의 교회(담임 임상훈 목사, 200달러), 생명과 사랑의교회(담임 신현우 목사, 300달러), 남가주 은혜선교교회(담임 김창근 목사, 500달러), 남가주 주안예 성결교회(담임 김상현 목사, 100달러), LA하나교회(담임 박지상 목사, 800달러), 방주교회(담임 서민수 목사, 200달러), 더 섬기는 교회(김영일 목사, 200달러), Acts Global Church(담임 박은성 목사, 410달러), His Presbyterian Church(담임 이현욱 목사, 1,000달러),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1,000달러),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 3,500달러), 리뉴얼세움교회(담임 정달성 목사, 1,000달러), LA동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재호 목사, 1,000달러),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 5,301달러), 카마리오 열방교회(담임 권혁래 목사, 125달러), 크렌셔장로교회(담임 한현종 목사, 200달러), 기독일보(이인규 목사, 500달러) 등 총 29개 교회 및 기관이 참여했다.

김동욱 기자

## LA한인타운 유일 한인 운영 사립학교 NCA, 학교를 빛낸 졸업생 선정

### 2003년 졸업생 조셉 구, 제인 민씨

LA한인타운 유일의 한인 운영 사립학교인 NCA(New Covenant Academy, 새언약 학교)가 지난 17일 2명의 졸업생을 ‘NCA를 빛낸 졸업생’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NCA는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학교 발전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를 기획했으며, 졸업생에게는 영예를, 재학생에게는 목표를 그리고 교직원에게는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정된 첫번째 주인공들은 이 학교 1회 졸업생인 조셉 구(38)씨와 제인 민(31)씨다.

첫 영예를 차지한 조셉 구씨는 2003년 졸업 후 페퍼다인대에 진학하고 CPA가 됐으며 이후 NCA로 돌아와 CFO로 일했다. 이후 법

대를 거쳐 현재는 한인 사회에서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NCA와 학생, 직원, 학부모로 긴 시간동안 함께 하다”면서 “가족 같은 환경과 특별한 멘토십 통해 많은 배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 지원서를 준비하며 송 교장 선생님과 사별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제인 민씨는 현재 결혼 후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NCA 졸업 후 UC 샌디에고에 입학해 수학한 후, 서울대 대학원을 마치고 보스턴컨설팅그룹, 국제백신기구를 거쳐 현재는 바이오제약사인 펩톤에 근무하고 있다. 민씨는 “학우들간의 경쟁도 치열했고 뒤처지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다”며 “적극적인 조언을 해준 선생님들 덕분에 자립심과 책임감,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 수업을 통해 배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영어 실력이 대학과 이



NCA를 빛낸 졸업생 조셉 구 씨



NCA를 빛낸 졸업생 제인 민 씨

후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강점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제이슨 송 NCA교장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NCA가 내년에 25주년을 맞는다”면서 “많은 졸업생들이 한인 사회는 물론 주류 사회, 한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 모교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특히 졸업생들

이 자신의 자녀를 입학시키는 등 학부모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NCA측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졸업생들은 오는 5월에 거행되는 졸업식에서 후배들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다양한 톨모델 역할을 하게 된다. 개교 25년을 맞는 내년에는 기념 행사에도 초청돼 NCA의 새로운 25년을 함께하게 된다. NCA측은 앞으로 매년 ‘NCA를 빛낸 졸업생’을 선정해 기념 액자를 헌정하는 방식을 통해 ‘명예의 전당’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NCA스쿨은 지난 1999년에 설립했으며 초중고 과정은 물론 킨더가튼과정까지 개설돼 있는 소수 정예 사립학교로 타인종 학생은 25%이다. 한인 타운에서는 국제학사과정(IB과정)을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김동욱 기자

#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 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Months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213.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ChatGPT 배척보다, 올바른 활용 고민을”

‘주님AI → 초원’ 개발  
김민준 대표

믿지 않는 사람도 질문할 수 있어 성경과 기도 통해 위로 주려 개발 직관적 명칭 오해 불식 위해 교재 성경 앱 생기고 성경 더 많이 읽어

ChatGPT 개발 이후 설교 준비 등에 대한 활용 가능성, 신학적 문제 등의 논의가 교계에서 시작된 가운데, ChatGPT를 기반으로 ‘무엇이든 대답해 주는’ AI 서비스가 등장했다.

‘주님AI’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는 크리스천 또는 넌크리스천들의 각종 고민이나 질문들을 ‘성경적으로’ 답변한다. 여기까지는 ChatGPT와 일견 비슷하지만, 질문에 해당이 되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해석과 기도 문까지 만들어 주면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초반 ‘주님AI’라는 직관적 명칭으로 불려온 다소 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명칭도 ‘초원(chowon.in)’으로 교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를 개발한 어웨이코퍼레이션 김민준 대표에게 개발 동기와 서비스 작동 알고리즘 등을 질문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끄는 크리에이터이자 크리스천이다.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하는 이들 또는 기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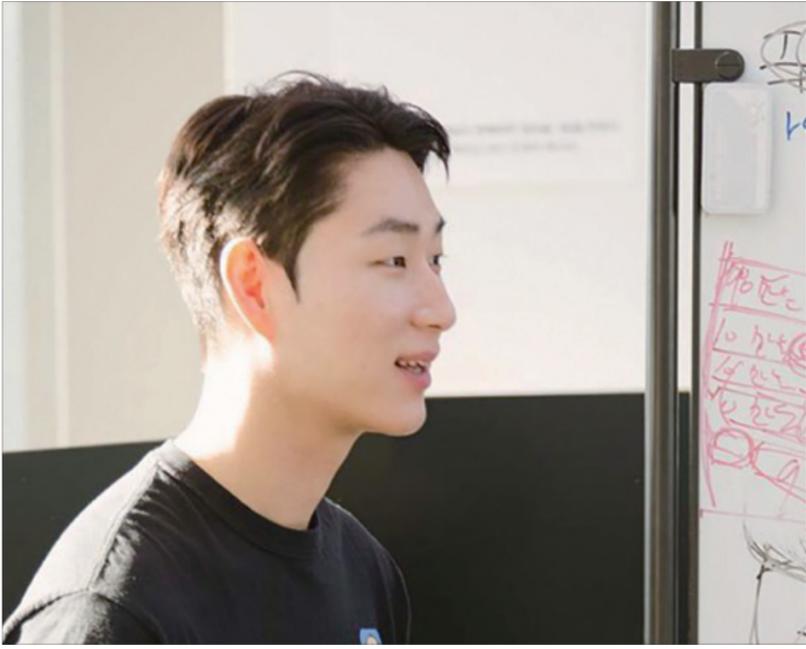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어웨이코퍼레이션 대표 김민준입니다. 어웨이코퍼레이션은 2020년 4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그동안 크리에이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주님AI’도 저를 중심으로 어웨이코퍼레이션 산하 TF 소속 팀원들이 다수 목사님들께 자문을 받으며 ChatGPT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신 ‘신앙적’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이자, 어릴 적 원천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중앙기독교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늘 종교로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말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와 내 사명은 무엇인지, 참된 진리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현재 베이직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스타트업을 해왔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는 여정에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할 때면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이 성공 비결을 묻곤 합니다. 그럴 때면 늘 ‘주님을 전도하기 위해 더 크게 쓰임 받고자 훌륭한 방법으로 사업을 임한다’고 답변하지만, 종교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제 의도가 인터뷰 기사에 반영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AI를 개발한 김민준 대표. ©어웨이코퍼레이션

기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기술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쓰임받거나, 교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개발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 목사님들께서 사용하는 업무 툴(tool)이었으나, 이미 국내에 교회 목회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종교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젊고 똑똑한 스타트업 종사자가 이 분야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돈을 지불해야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돈을 받는 영리기업이 종교로 사업으로 본다는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기에 더욱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 기독교 관련 기술이 부재하거나 여전히 낙후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매일 큐티(QT) 책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하루 한 장씩 묵상하고, 기록하던 습관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출판사에서 QT 책을 구입해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을 믿는 친구들을 사회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 잦은 교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책이 없을 땐 묵상하고 교제를 나누기란 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큐티 어플리케이션도 찾아봤지만, 출판사가 외부 용역을 통해 개발한 낙후된 앱들뿐이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원하던 교제를 돕는 데 기술을 쓰고 싶다는 목적과 취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이번 ‘주님AI’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주님AI’는 기독교인과 더불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해 보고, 적절한 성

경 구절을 통해 답변을 받고 기도문을 읽어 보면서 위로를 받길 바라는 마음에 개발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하루 만에 개발해 만들고 함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몇 명에게 나눠 주고 퇴근했는데, 주말 사이 폭발적 반응이 있었고, 누적 5만 개 정도의 질문을 받았습니

다. 갑자기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인공지능이 신과 목사를 대체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글들과, 이 서비스를 만든 의도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들, 동시에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된다, 위로를 받는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받으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ChatGPT 개발 후 기독교계는 설교와 신학적 활용에 대해 아직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챗GPT나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세미나에서 최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결코 영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백과사전의 총합’이라는 비유에 동의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성경 지식과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또래인 20대 중반 크리스천들은 이미 공부할 때 성경 앱을 통해 구절을 검색해 보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 시대의 더 진보된 기술에 불과하며, 그 기술을 어떻게 도구로 잘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후 종이로 이루어진 성경책은 무겁고 크다 보니 휴대가 불편했지만, 성경 앱이 생긴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알람으로 받고 묵상하고, 성경을 더 빠르게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형태로 인공지능을 기술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고 인간이 성경을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되려 이번 ‘주님AI’를 사용해 본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기에 목사님의 개인 철학이나 가치관, 정치색, 동성애나 혼전순결 등에 대해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성경 구절을 통한 순수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객관적인 답변을 받다 보니,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단을 배척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런 이유로 기술이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닌,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게 사용되는 일을 원치 않으며 최대한 조심하고 여러 주변 목사님들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AI의 알고리즘과 질문에 대한 대답 및 말씀 선택에 있어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할수록 대답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인가요.

“ChatGPT를 사용하고 있으며, 성경 안에서만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말씀은 적절한 성경 구절을 인공지능이 찾을 수 있도록 했으나, 여러 교단 목사님들과 소통하며 이단적 답변을 하지 않고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 해서 답변 퀄리티가 더 고도화된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들과 답변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개발을 함께 한 팀원들뿐 아니라 목사님들과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답변이 모호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것은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용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세운 교회, 편의시설로 바뀔 위기

### 1958년 설립된 구(舊) 하와이한인기독교독립교회, 종로구, 용도변경 추진

서울 종로구 옥인동 인왕산 자락에 있는 서울교회(구 하와이한인기독교독립교회)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세운 교회지만, 지역 편의시설로 바뀔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서울시 재산으로 편입됐고, 종로구가 '숲속주민힐링센터'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원래 이 전 대통령이 육군 공병대에 직접 지시해 지난 1958년 5월 1일 '하와이한인기독교독립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운 곳이다. 일제 하 당시 하와이 기독교인 동포들이 조국의 독립운동을 도왔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 전 대통령은 미국 감리교단을 탈퇴하고 교인들과 함께 1918년 하와이에서 한인기독교회를 세웠다. 여기에 참여했고 이 전 대통령과 함께 '동지회' 활동을 했던 이종관 목사가 이 교회 첫 목회자로 부임했다.

'이승만하와이한인기독교독립교회 보존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은경 목사는 이

교회에 대해 "역사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 예배당이 세워진 지 65년이 지났고, 건물 형태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고 했다. 또 최 목사에 따르면 종로구가 지역구인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등도 교회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교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하야한 뒤인 1964년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에 속하게 됐고 이름도 지금의 서울교회로 바뀌었다. 그러다 2019년 서울시 재산으로 편입됐다. 당시 이 교회에는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교회는 비어 있다가 지난해부터 지자체에 의해 지역 편의시설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이 교회 인근에 살고 있는 최은경 목사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보존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최 목사는 "하와이한인기독교독립교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한인 사회가 함께 이어가야 할 우리



서울 인왕산 자락에 있는 서울교회(구 하와이한인기독교독립교회)

의 위대한 자산"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이 살아 숨을 쉬고 대를 이어 호흡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닌 기독교 신앙을 근본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

을 위해 민족 교회와 교육의 장으로 설립됐던 교회는 계속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를 중심으로 한 보존추진단은 향후 관계부처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교회 보존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 교회언론회 "국회의원 수 100명 정도로 하자"



국회의사당 ©www.assembly.go.kr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3일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로 줄일 것 등을 제안했다.

언론회는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인데, 국회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집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300명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가발전이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인구비(人口比)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다. 미국은 인구 62만 명을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한다. 멕시코는 20만 명당 1명, 일본은 17만 7천 명당 1명"이라며 "반면에 한국은 17만 2천 명을 1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멕시코보다 인구 비례로 보면 국회의원의 수가 많은 셈"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따라서 정치권이 국민의 눈

높이에서 정치 개혁을 하려면 획기적으로 국회의원 수 조절해야 하고, 여러 가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숫자를 현재보다 확 줄여야 한다. 지금의 300명 의원들도 너무 많다"며 "어차피 국회는 입법 활동을 하는 곳인데, 지금처럼 의원이 많다고 입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인구 50만 명당 1명 꼴로 선출하여 의원을 100명 정도로 맞추면 좋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7억 원이다. 그러면 국회 한 회기를 마치려면 1조 원 가까이 들어간다. 국민의 세금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곳에 쓰이는 셈"이라고 했다.

또 "세비를 낮춰야 한다. 지금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하니, 전혀 국회의원의 자질도 품격도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온갖 '싸움판'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특권을 대폭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만 되면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

린다는데, 일반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의 예우에 관한 특혜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특혜들을 대폭 줄이고, 거의 봉사직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직접 뽑은 선출직만 남기고, 비례대표, 위성 정당으로 의회로 의원 수를 늘리는 행태는 근절시켜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어차피 정치인들의 역할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민생을 위한 것이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대리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거기에 충실한 목적을 이루면 되기 때문에, 자기 배를 깔고 개혁과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혜택과 권리를 누려왔고,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여왔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 개혁을 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보라"고 주문했다.

언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정치를 하고,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입법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리하여 청사(靑史)에 길이 남을 정치 개혁의 신호탄을 쏘고,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으며, 한국 정치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쌓는 주인공들이 되어 보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 박성규 목사, 총신대 신임 총장 당선

### 14표 중 11표 얻어...문병호 교수는 3표

박성규 목사가 총신대학교 제22대 총장에 당선됐다.

총신대 법인이사회(이사장 김기철 목사)는 11일 저녁 총신대 사당캠퍼스에서 14명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박 목사가 11표를 받아 3표를 얻은 문병호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조직신학)를 제치고 선출됐다.

앞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총장 후보로 박 목사 및 문 교수와 함께 김창훈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실천신학)도 추천했지만, 김 교수는 후보에서 사퇴해 이날 선거는 박 목사와 문 교수만 두고 실시됐다.

총신대학교(B.A.)를 졸업한 박 목사는 동 신학대학원(M.Div.eq.)과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Th.M.)을 거쳐 미국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D.Min.)를 받았다.

서울 내수동교회 대학부 전도사, 대한민국육군 군목,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 선임 부목사, 미국 나성한미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총신대 총동창회장과 예장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 실무부이사장도 지냈다. 현재 부산 부전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25일 총신대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한 현 이재서 총장의 임기는 오는 5월 24일까지다. 김진영 기자



박성규 목사 ©기독교일보 DB

# 제8기 가정선교 세미나

1. 주 최 : 미주 가정선교회

2. 일 시 : 2023년 5월 6일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 장 소 : 생수의강 선교교회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4. 참가비 \$50.00(성인부부) 점심식사 제공  
\$30.00(목회자부부,싱글)

5. 강 사 : 이재근 목사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 Ph.D.)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쿰란) 저자

6. 강의내용: 가정, 가정선교, 가정문제 해결방안

7. 기타 안내

(1)참가신청은 이메일(jaekunlee00@hotmail.com)이나, 전화(562-714-0691)로 하시면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2)신청서나 수표를 보낼 경우 Pay To 를 LLMC로 명기하시고, Rev. Jae Kun Lee (11908 Centralia Rd. #102, Hawaiian Gardens, CA 9071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신문, 기독교일보, 목회자아버지학교, 주사랑선교회, 생수의강 선교교회

# 美 55%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참여 반대”

## 유고브, 1,500명 대상 설문조사

대다수의 미국인이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는 것과 어린이를 드래그쇼(일종의 게이 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고브(YouGov)는 더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후원을 받아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유고브는 설문을 통해 성별에 대해 혼란을 보이는 아동들을 위한 사춘기 차단제 처방 등 LGBT 관련 이슈에 대해 물었다.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성적 정체성에 따라 스포츠 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묻자 15%가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17%는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했다. 응답자의 다수(43%)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다른 12%는 “어느 정도 반대한다”고 해 반대 의견이 55%에 달했다.

현재 미국의 21개 주에서 운동 선수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도록 한 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트랜스젠더 아동이 그들이 선택한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팀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뿔이 5개 달린 사탄의 복장으로 등장한 드래그퀸이 아이들에게 동성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REALOMARNAVARRO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21개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등이다.

이 법안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여성들과 소녀들이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와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2020년 12월 영국 스포츠의학저널(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는 여성화 호르몬을 2년 동안 복용한 후에도 육상에서 생물학적 여성보다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은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여성 스포츠 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됐다.

‘드래그퀸’(Drag Queen·여성 복장을 한 남성 동성애자)이 등장하는 드래그쇼에 대해 묻자 응답자의 절반(50%)은 “18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14%는 “모두에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25%는 “모두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나머지 12%는 “확실히 아니다”고 했다.

아동들에게 드래그퀸이 성적인 춤을 추는 드래그쇼를 허용하는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러한 공연이 해당 연령에 적합하지 않으며, 어린이를 노골적으로 성행위에 노출시키고 성별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또 “부모가 자녀 또는 청소년에게 사춘기 차단 약물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지 묻자 39%가 “강력히 반대한다”고, 14%는 “다소 반대한다”, 14%는 “다소 지지한다”, 18%는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미국의 12개 이상의 주는 미성년자가 사춘기 차단제 복용 등, 지지자들이 소위 ‘젠더 확인 케어’라고 주장하는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

켰다. 12개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시시피,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이 법안은 화학적 거세 및 외과적 거세와 같은 신체 절단 성전환 절차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 발의됐다.

미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사춘기 차단제의 잠재적인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및 여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 등을 언급했다. 또 성별 위화감을 겪는 아동들에게 자주 처방되는 교차 성호르몬은 평생 동안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몸을 절단하는 수술은 여아의 건강한 유방 조직을 제거하고, 팔뚝 피부와 조직을 떼어내 연약하고 기능하지 않는 음경을 만드는 것으로, 신체에 흉터를 남긴다. 탈성전환자인 클로에 콜(Chloe Cole)은 의료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러한 수술은 자살 충동과 정신 건강 상태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K-12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른 대명사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39%는 “강력하게 지지한다”, 21%는 “다소 지지한다”고 했다. 10%는 “다소 반대한다”, 16%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美 기독교인 우주비행사, 나사 2차 달 착륙 임무 수행 참가

미국 항공우주국(나사)가 최근 발표한 달 2차 인간 착륙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두번째 우주 발사체 탑승명단에 독실한 기독교인 우주 비행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달 초 발표된 명단에는 크리스티나 코크, 라이드 와이즈먼, 빅토르 글로버(선장)와 캐나다인 제레미 한센이 포함됐다. 이들의 임무는 나사의 오리온 우주선을 타고 10일 간 비행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조종사가 될 글로버는 이라크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한 전 미 해군 사령관으로 달 궤도를 비행하는 최초의 유색인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글로버는 이달 초 휴스턴에서 열린 나사 행사에서 아르테미스 미션을 발표하면서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글로버는 “우리는 인류 역사의 이 순간을 축하해야 한다”며 “이번 임무는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가는 여정의 다음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축복하기를

기도하지만, 우리가 국가 간 협력과 평화를 위한 영감의 원천으로 계속 봉사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버는 휴스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es of Christ) 교인으로 2020년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6개월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할 때 크리스천 크로니클에 소개된 바 있다.

그는 2020년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내 일을 잘하고 승무원과 임무, 나사를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글로버는 “가상 예배와 헌금을 드리고, 성경읽기와 기도에 참여하려고 성찬집과 성경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버는 달로 날아간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일 뿐만 아니라, 코크는 달 탐사를 나선 최초의 여성이 될 것이며 한센은 최초의 캐나다인이 될 것이라고 CP는 전했다.

캐나다 우주국 책임자인 프랑수와-필립 샴페인 장관은 성명에서 “캐나다가 이 흥미진진한 여행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샴페인 장관은 “모든 캐나다인을 대신하



아르테미스 2호 임무 참가자로 선정된 비행사 라이드 와이즈먼, 크리스티나 코크, 빅토르 글로버, 제레미 한센(가운데 앞부터 시계 방향). ©나사

여 인간이 수행한 가장 야심찬 노력 중 하나의 최전선에 서게 된 제레미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는 우리 우주 역사의 한 장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우정과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나사의 첫 달 착륙은 1969년 7월 아폴로 11호 임무를 통해 이루어졌다. 유인 우주선의 마지막 달 탐사는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였다.

내년 11월 이륙할 예정인 4명의 승무원은 비행 테스트 시연을 수행하기 위해 여행 중 작업에 협력한다고 CP는 전했다.

나사 존슨 스페이스 센터의 비행 운영책임자인 노엄 나이트는 “이 용감한 4명이 달과 그 너머로의 여행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우주비행사 군단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정확히 나타낸다. 능력이 뛰어나고 성취도가 높은 개인들이 팀으로서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기술과 결단력을 갖춘 조합이다. 아르테미스 2호 임무는 도전적일 것이며 우리의 한계를 시험할 것이다. 미래의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낼 준비를 하라. 라이드, 빅터, 크리스티나, 제레미가 조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닥칠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박스오피스 5위



영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포스터.

개봉 후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기독교 영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Come Out in Jesus Name)의 앙코르 상영작이 10일 최고 흥행작 박스 오피스 5위로 치솟았다.

이는 ‘AIR’, ‘턴전스 앤 드래곤’, ‘존 워: 캡틴 4’,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에 이은 것으로, 스크린당 평균 박스 오피스로는 2위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전국 영화관에서 첫 선을 보인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는 그렉 로케(Greg Locke) 목사와 알렉산더 파가니(Alexander Pagani) 목사, 유튜브 설교자

아이자야 살디바(Isaiah Saldivar), 마이크 시그노렐리(Mike Signorelli) 목사, 블라디미르 사브처크(Vladimir Savchuck), 다니엘 아담스(Daniel Adams)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자칭 은사증단론자였던 로크 목사는 이제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완전히 받았다고 있으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권세로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마귀의 압제나 소유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

지난달 영화가 처음 개봉된 후, 관객들은 극장에서 일어난 축사와 대한 영상과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으며 이날 앙코르 상영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올라왔다.

로크 목사는 이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개봉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인도하는 운동으로 바뀌었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갖도록 시작한 영화가, 소셜미디어에 수천 명의 구원의 이야기와 간증이 쏟아지면서 적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이 영화를 봤고, 많은 이들이 친구 및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 “美 히스패닉 중 30%가 ‘무신앙’

### 가톨릭교인 43%, 개신교인 21%

퓨리서치연구소(Pew Research Center)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히스패닉의 30%가 ‘무신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히스패닉계 응답자의 30%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정한 종교가 없다’고 한, 이른바 ‘무신앙’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과 2013년 퓨리서치센터가 실시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히스패닉 응답자의 각각 10%와 18%가 ‘무신앙’이라고 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히스패닉 응답자는 2010년 67%에서 2022년 43%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또 자신이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히스패닉 응답자는 21%를 차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 비율을 유지했으며, 자신이 거듭난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

퓨리서치연구소는 2022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 7,647명의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는 퓨의 아메리칸트렌드패널(American Trend Panel)과 입소스(Ipsos)의 날리지패널(Knowledge Panel)에서 선정한

3,029명의 히스패닉도 포함됐다. 오차범위는 ±1.7%p다.

한편 히스패닉 공동체의 종교적 차이는 정치에서도 발견되는데, 라틴계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절반이 공화당원인 반면, 라틴계 무신앙인의 66%와 라틴계 가톨릭 신도 72%가 민주당원으로 확인됐다.

무신론자 작가이면서 아이오와주립대학교의 종교 연구 교수였던故 헥터 아발로스(Hector Avalos) 박사는 지난 2018년 CP에 게재한 칼럼에서 그 당시 실시한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히스패닉 가운데 ‘무신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아발로스 박사는 ‘슈무엘 페이너(Shmuel Feiner)의 저서 ‘유대인들 세속화의 기원들’(The Origins of Jewish Secularization)에서 유대인의 세속화에서 서양과 중유럽의 엘리트 작가들과 지성인 그룹에 이르기까지 세속화의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생각은 더 많은 청중에게 확산됐고, 라틴인들이 더욱 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CP에 따르면, 최근 많은 수의 무신앙 청년들과 더불어 ‘무신앙’ 미국인들의 성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표된 갤럽 보고서를 비롯해 최근 연구들은 일반인들 사이에 무신앙 인구의 증가세가 느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강혜진 기자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애서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역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4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전선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놀웁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jrkdk@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아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령집회 오후 7:30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금요일예배 오후 8:00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목,금), 오전 6:00(토)  
 라크레스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30 / 토 오전 6:00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일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근**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근**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중**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 (한어)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토)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청년성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교차)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예배 오후 7:00  
아침달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례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오픈)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 유아부, 유서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e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오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2부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w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치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기도회(마침막)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w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학교 오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wkum.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사망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부흥 현장’ 애즈베리대, 학생들이 지역사회 곳곳서 간증

올해 2월 영적각성운동을 일으킨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의 애즈베리대학교(Asbury University)가, 부흥의 감격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애즈베리 대학생들 단체 또는 2인 1조로 구성된 ‘아웃퍼어링 팀’(Outpouring Teams)은 지역교회 등을 방문해 그들의 체함을 간증하고 있다.

이 대학의 교목이자 영성생활 부학장인 그레그 하셀로프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간증팀들이 ‘형식을 제대로 갖춰 매우 유기적’”이라며, 자신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셀로프 목사는 “애즈베리에서 매우 짧은 시간인 16일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은 국가적·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다. 교회·대학 및 기타 신앙 공동체의 관심은 매우 강렬했고, 직접적인 설명을 들으려는 열망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분출은 진정성에 대한 틀림없는 확증을 받아냈다. 이는 (학생) 팀에 대한 요청을 증가시켰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자 하는 교회 안의 격한 갈망을 보여 줬다”고 했다.

아웃퍼어링팀에는 30-35명의 애즈베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20명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장소를 방문해 영적 부흥의 경험을 전하고 있다.

하셀로프는 이 팀이 끼친 두 가지 파급력으로 “첫 번째, 학생들이 신앙을 공유하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 줬다. 두 번째,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또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려는 열망을 높였다”면서 “학생들은 예배 시간이 보통의 기대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격했고, 놀라운 환대를 경험했다. 지역사회는 큰 사랑, 보살핌, 친절 및 관대함으로 우리 학생들을 맞이했다”고 했다.

애즈베리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아버 립은 “팀들이 전 지역으로 가고 있다”면서 “영적 경험과 간증을 전하고



애즈베리대학교 휴즈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류응렬 목사 페이스 북

자 하는 팀원들의 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전했다.

립은 “우리 학생들은 놀랍고, 타인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즐거워하고 있다. 전 세계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다.

립에 따르면, 봄방학 후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지역사회에 이야기와 간증을 나누는 행사를 두 번 개최했다. 16일간의 연속 예배가 끝난 뒤, 학생들은 멘토와 연결돼 소그룹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겼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과 멘토링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나섰다. (소그룹 중 일부는) 캠퍼스 안에, 일부는 캠퍼스 밖에 있다”며 “교수진과 교직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는 것과, 지금도 일하시며 봉사하고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계속 놀란다”고 했다.

지난 2월 8일 애즈베리대학의 휴즈 예배당에서는 채플 이후 24시간 예배와 기도가 이어졌다. 이 영적각성운동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인파를 끌어들였고, 시골 마을인 윌모어는 영적 부흥의 진원지로 급부상했다.

강혜진 기자

## ‘방송 선교 선구자’ 찰스 스탠리 목사, 향년 90세로 별세



©퍼스트배пти스트교회 공식 트위터 캡처

자였다. 그가 1977년 창립한 ‘인 터치 미니스트리스’는, 그의 말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의 설교와 팟캐스트, 목사 등은 매주 전 세계 126개국 이상에서 1억 1천 5백만 가구에 송출되고 있다. 스탠리 박사의 사망 당시에는 모든 국가에서 라디오, 단파 혹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인 터치 미니스트리스’의 다양한 사역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현재 미국에서 ‘인 터치 미니스트리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204개 지역 방송국과 7개 위성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은 458개 방송국 및 단파 라디오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스탠리 목사는 1988년 미국 ‘국립 종교 방송인 명예의 홀’에 입성하기도 했다. 작가로서 그는 60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으며, 그중 몇 권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다. 또한 1980년대 미국 남침례회 회장직을 두 차례 지내고, 교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끼친 목회자다.

에틀랜타 퍼스트배пти스트교회 원로목사이자 ‘인 터치 미니스트리스(In Touch Ministries)’ 창립자인 찰스 프레이저 스탠리 박사가 18일 오전 향년 90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

폭스5뉴스의 벅 램포드 기사는 에틀랜타 퍼스트배пти스트교회 담임인 앤서니 조지아 목사가 “에틀랜타 지역의 영향력 있는 신앙의 지도자가 화요일 오전, 그의 집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목회자이자 방송인, 저자로서 50년 이상 퍼스트배пти스트교회를 섬겨온 스탠리 목사는 1971년 제16대 담임목사로, 1848년 설립된 이 유서 깊은 교회에 위임됐다. 스탠리 목사의 리더십 아래 교회는 전례 없는 성장을 경험했으며, 1997년에는 피치트리 선상의 미드타운 지역에서 현재 던우디 지역의 에이본(Avon) 건물로 이전했다. 이는 메트로 에틀랜타 지역에서 교회를 찾는 다양한 배경의 1만 5천 명 이상의 성도들을 수용하기 위함이었다.

1932년 버지니아 드라이포크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종교 방송 분야의 선구

고인은 슬하에 딸 베키와 아들 앤디를 두고 있다. 그 중 앤디 스탠리 목사는 노스포인트미니스트리스의 창립자이자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앤디는 그의 아버지를 목회자들의 롤 모델로 회고했다.

아들 스탠리 목사는 “(아버지는) 설교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직함을 갖고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또 지나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셨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는 점점 더 드문 일이 되어 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아내인 애나 스탠리는 2000년 별세했다. 강혜진 기자



# 네덜란드, 지난해 안락사 8,700여 건... 전년대비 14% 증가

## 치매 환자의 안락사 요구 34% 증가

네덜란드의 지난해 안락사 수가 8,7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검토위원회는 "치매 환자의 안락사 요구는 34% 증가했으며, 함께 죽길 원하는 커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더치뉴스(DutchNews)에 따르면, 2022년 안락사 수는 8,720건으로 약 14% 증가했다. 이 수치는 매년 10% 가까이 증가해 왔다.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안락사 수는 전체 사망자 수의 4.5%에서 5.1%로 증가했다. 치매 환자의 안락사 요청은 288건으로 2021년보다 34% 늘었다.

또 다양한 질병을 앓던 379쌍의 부부가 안락사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23% 증가한 것이다. 부부가 모두 안락사 기준

을 충족한 경우, 58쌍이 별도의 컨설턴트를 만나 함께 죽음을 선택했다.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들 중 안락사 수는 115건으로 2021년과 동일한 수이다.

전체 안락사 중 13건의 경우, 의사가 안락사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치뉴스는 "안락사가 20년 전 합법화된 이후 총 91,565건 시행됐으며, 그 가운데 133건만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네덜란드는 2001년, 벨기에는 2002년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그리고 벨기에는 2014년에 안락사에 대한 연령 제한을 해제했다.

네덜란드법에 따라 안락사는 환자가 개선의 소망 없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주치의가 특정 치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 미얀마 법원, 美 석방 요구 불구 현지 목회자에 징역 6년 선고



미얀마 카친주에 위치한 교회. 카친주의 주민 95%는 크리스천이다. ©Twitter/@BobRobertsJr

미얀마 법원이 미국 정부의 석방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체포·구금된 전 카친침례회(Kachin Baptist Convention, KBC) 회장 칼람 샘슨(Hkalam Samson)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영국의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는 최근 "미얀마 미치나(Myitkyna) 법원이 불법 결사법, 형법 및 테러법을 위반한 혐의로 샘슨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친국가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샘슨은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 구성원을 만나고 평행정부 구성원과 기도회를 연 혐의로 체포됐다.

CSW 동아시아 선임 분석가 베네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 박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정의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희화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샘슨 목사의 친구이자 저술가이기도 한 로저스 박사는 "샘슨 목사는 완전히 비폭력적인 기독교 목사이자 용감하며 지질 줄 모르는 정의, 인권, 평화의 옹호자"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타트마도우(Tatmadaw)로 알려진 군대와 소수민족 민병대 사이의 갈등이 심화돼 왔으며, 민병대는 민주화 시위대를 지원했다.

로저스 박사는 "그는 미얀마 군부가 국민에게 자행한 야만적 행위에 관하여 용감하게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투옥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샘슨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미얀마의 모든 정치범이 석방되고 미얀마 군이 민족 국가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미얀마가 올바른 길에 놓일 때까지 미얀마의 불법적인 군사 정권에 표적 제재를 가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연방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KBC 회장 겸 총무를 역임한 샘슨 박사는 '카친독립'(Kachin Inde-

pendence)의 정치 분파인 '카친독립기구'(Kachin Independence Organization, KIO)와 군대 및 지역사회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해 온 지역 종교 및 정치 지도자 그룹인 '카친국가고문협회(Kachin National Consultative Assembly)'의 회장이다.

구금된 샘슨 목사는 지난 10월 마을에서 열린 KIO 기념일 콘서트에서 발생한 군부 공습의 희생자 60명 이상의 장례식을 주선하고, 중상을 입은 이들이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그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미얀마 기독교 단체들을 대표하는 미얀마교회협의회가 주최한 미치나 기도회에 참석했다.

지난 2월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샘슨 목사 체포를 비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그의 안녕과 안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파트너와 동맹국이 정권에 모든 혐의를 철저히 하고 목사 샘슨을 즉시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범후원협회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2일 현재 3,200명 이상을 살해하고 21,300명 이상을 체포했다.

1948년에 시작된 미얀마 남북 전쟁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분쟁 지역은 인도, 태국,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을 따라 이어져 있다.

미얀마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도와 국경을 접하는 친주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친주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또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야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유엔을 포함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 쿠데타 이후 군부가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를 과도하게 표적으로 삼고, 수백 명의 어린이를 잔인하게 공격하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OC재물: 금요일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8:00(2000)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벨리재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6:00  
189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충현선교교회**  
플라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목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지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9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DC(EM)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CRPC 모레노밸리연합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목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Youth/ College 주일오후 11:00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혁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인양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부인양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구원하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ot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서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98

### “튀르키예(터키)의 고난에 함께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몇 주 전에 한 교회 연합 단체의 리더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30여 개의 교회 연합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한 헌금을 모으려고 하는데 그 헌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사역하시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몇몇 큰 규모의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들은 이미 막대한 액수의 헌금들이 모여져서 눈에 보이는 큰 규모의 재난 구호 사역을 하고 있으니, 목사님이 터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을 알고 계시니 난민과 피해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 분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깊은 기도 끝에 앙카라에 거주하시면서 지난 20년간 선교 사역을 건실하게 해 오시는 선교사님이 팀장이 되시는 선교사 팀을 연결해 드렸다. 몇 주 동안 서로 소통을 나누면서 좋은 영향들을 받게 되어 마침내 귀한 결실을 얻게 되었다.

필자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이번 주, 어느 날 몇 시까지 어느 교회로 오셔서 목사님이 현지 선교사 팀들 대신 헌금을 받아주셔서 보내달라 하는 부탁을 해왔다. 그리고 참여하신 교회와 목사님들이 같이 모인 자리이니 그분들께 터키 현지 상황과 선교 대비에 대한 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면서 기도 인도까지 청하였다. 필자는 좋은 일이니 가까이 가서 대신 받아 잘 보내겠다 하였다. 그리고 설명회에 이어 기도회를 인도하였다.

필자는 앙카라 대표 선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선교 대책들을 나누었다. 앙카라의 선교 팀은 현재 지진 피해 지역을 떠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앙카라와 인접 도시들로 대거 이동한 상태라 터전을 다 잃고 다시 떠돌아가 되어 온 난민이자 지진 피해자인 그들을 맞이하여 어떻게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공하는 사역 등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인 난민들은 장기적 생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특히 취약 연령의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역, 노동 가능자들에게 일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알선하는 사역, 그중 중간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기능에 맞추어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사역 등 매우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물론 빠질 수 없는 사역은 그들에게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는 복음 사역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거론한 것처럼 터키 내에서는 지금 민족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동남부에 집중하여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난민, 시리아 난민, 이란 난민 등이 지진 피해로 인해 생존할 곳을 찾아 북쪽 지역으로 대거 민족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터키 정부는 난민들에 대한 정책을 수용보다는 추방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서 그들의 장래는 더욱 어둡기만 한 상태이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슬람교에 대해 매우 큰 실망과 회의가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복음 소식은 너무도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러한 때에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접근이 수월해지는 환경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때 우리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의 더욱 힘을 내어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들과 아픔을 분담하는 사랑의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우리 한인 교계가 튀르키예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여러 다양한 방법과 형태의 구제 사역을 힘쓰는 모습은 타민족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 비록 너무도 혹독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이 가득한 그들이지만 그들의 고난에 세계 형제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사랑과 자선의 행위는 그들로 막혔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의 마음에서 그들을 많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 현지의 선교사들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 알베르 까뮈의 “오해”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알베르 까뮈(Albert Camus)는 프랑스 출신의 사상가, 수필가 그리고 소설가입니다. 까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걸출한 문학가입니다. 그는 궁핍한 노동자인 아버지와 스페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까뮈가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는 전사했습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는 까뮈와 형 뤼시앵을 데리고 알제리 빈민굴로 이사하여 외할머니와 불구자인 외삼촌과 함께 살았고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까뮈가 처음으로 발표한 수필집 《표리》(1937)는 어린 시절의 어둡고 가난했던 어머니와 외할머니 및 외삼촌과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필집 《결혼》(1938)은 알제리 시골에 대한 서정적인 묘사를 담았습니다.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가난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부(富)임을 보여줍니다. 두 권의 수필집은 모두 인간의 약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18년에 까뮈는 공립국민학교에 들어가, 뛰어난 교사 루이 제르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르맹은 까뮈가 알제 리세(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까뮈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34년 뒤에 까뮈는 노벨 문학상 수상연설을 제르맹에게 바쳤습니다. 스승 제르맹에 대한 까뮈의 존경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는 장면입니다.

까뮈는 한때 공산 사상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는 한때 좌파적인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서 등을 돌리고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지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혁명과 과격한 개혁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르트르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를 ‘문명의 질병’ ‘살인의 사상’으로 규정했던 까뮈는 사르트르에게 버림받습니다.

까뮈는 모더니스트이자 정치이론가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서 그 세대 대변자이자 다음 세대 스승으로 인정받습니다. 그의 글들은 주로 낯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고독,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는 개인의 소외, 약의 문제, 그리고 죽음이라는 압박한 과국을 이야기함으로써 전후 지식인들의 소외와 환멸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까뮈는 많은 동시대인의 허무주의를 이해하고 있

들이 몇 푼의 돈을 위해서 독약을 먹어 죽인 그 청년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요, 오빠였던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고 오빠를 죽인 모녀는 거의 실성합니다.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버렸던 강물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딸도 어머니를 따라 강물에 몸을 던지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천명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죄는 불행할 뿐이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돈이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오해했던 처절한 절망 속에서 자살합니다. 모녀는 끔찍한 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질러왔지만 얻은 것은 성공해 돌아온 아들과 오빠를 살해와 자신들의 죽음이었습니. 까뮈는 오해의 비극을 잔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까뮈의 ‘오해’는 인간이 가진 오해의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본 작품에는 몇 가지 오해가 나타납니다. 인간성을 파괴하고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오해들입니다. 첫째 오해는 모녀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과 오빠를 알아보지 못하는 오해입니다. 그냥 돈 많은 투숙객으로 알아보는 오해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들이 변장해도 아들을 몰라보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까뮈는 아들과 오빠를 몰라보는 이 모녀의 모습에서 가족과 가정의 가치를 몰라보는 타락한 인생들의 불행을 보여 줍니다.

까뮈가 고발하는 둘째 오해는 돈이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준다고 믿는 오해입니다. 오빠를 죽일 독약을 음식에 넣으며 뇌까리는 독백은 몸서리칠 만큼 잔인합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돈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거야.” 참으로 소름 돋는 잔악성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사려는 사람들의 불행한 오해를 고발합니다.

까뮈가 고발하는 셋째 오해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감출 수 있다는 망상적 오해입니다. 그들은 시신을 강물에 던지며 완전 범죄를 꾸미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완전 범죄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아들과 오빠를 죽이면서 자신들의 벌을 스스로 받습니다. 살인 피해자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며 결국 목숨을 버립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은 이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오해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지천으로 깔렸다는 사실입니다.

##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달보트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보트" 검색  
유튜브: "달보트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중회원
- 기독교위원회(ABHE),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만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연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인정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ia.edu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 1차 완판 감사!!

“뜨거운 관심으로 1차 물량 완판”

# “2차 물량 판매 개시”

## 100세 시대!!

“이제 굽은등을 펴세요!!”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볼륨 UP**

100% 국내생산



~~\$45~~ \$40

### 완판감사! 추가선물



3월 31일 까지

탈부착 이동이 가능한 폭신한 어깨패드 (10불상당)



어깨패드는 거드랑이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추가 구성품으로 피부가 예민해 밴드가 조이는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함께 구입하여 같이 착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리비스타 멀티 발목 보호대 하나로 다양하게**

발목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발목 관절과 인대부위를 압박하여 발목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 보호해 줍니다.

# 빈틈없이 꼭 잡아!

리비스타 손목 보호대 걸고 감으면 끝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루종일 내 손목을 지키는 손목지킴이 1mm 얇고 가벼움, 손목에 착~ 밀착!!

1 건설협회 추천 최우수 제품 선정

BEST SELLER

리비스타 압박밴드 시리즈



건설현장/요식업/ 컴퓨터 사용시/골프/테니스등



#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기초건강 · 항산화 · 에너지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비타민C사실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고려은단 비타민C는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영국산 원료를 사용합니다.



고려은단 미국 공식 딜러 정품라벨을 확인하세요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비타민 먹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멀티비타민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비타민 C 1000 300정



비타민 C 1000 120정



멀티비타민 올인원 120정



골드플러스 120정



퓨어 알티지 DHA 오메가3 60캡슐



메가도스B 비타민 B 64정



퓨어 홍삼 스틱 30포



퓨어 홍삼 60캡슐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기독교샵

교회, 단체 행사선물 상담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교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스캔하고 상담하기!



213-235-6663

도소매 타주 판매점 모집 문의

올코샵 3055W. 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KIDOK SHOP

www.kidokshop.com

강준민 칼럼

# 숲 밖을 나오니 숲이 보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숲 안에 있으면 숲을 보지 못합니다. 숲을 보려면 숲 밖을 나와야 합니다. 숲 밖을 나오니 숲이 보입니다. 한국에 나오니 미국이 보입니다. 조국교회에 나오니 이민교회가 보이고 제가 섬기는 새생명비전교회가 보입니다. 여행은 눈뜸입니다. 저는 눈뜸을 좋아합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눈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고후 4:4). 그래서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눈뜸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통해서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입니다. 좋은 만남과 독서를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그들과 동행하는 분이 주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실 때 눈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들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눈뜸이 축복입니다.

모국에 와서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눈뜸이라는 단어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뜸이란 단어가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행 26:17-18). 특별히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눈을 뜨게 하여"라는 말씀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눈뜸이 축복입니다. 눈뜸은 깨달음입니다. 눈뜸은 열림입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눈뜸은 회개입니다. 눈을 뜰 때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눈뜸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눈뜸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눈뜸은 새로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가 모국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국에 와서 환대에 대해 다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제가 머무는 곳은 신길교회가 제공해 준 게스트룸입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과 사모님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며 안식하고 있습니다. 모국에 나오면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곳을 제공해 주는 것은 큰 사랑입니다. 저는 수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대하지 않으면 움츠리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환대 속에는 나그네를 편안하게 쉬도록 도와주는 환대가 있습니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쉬도록 도와주는 환대는 최상의 환대입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을 통해 그런 환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국에 와서 배움에 대해 다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저는 배움을 좋아합니다. 인생은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모국에 오니 정말 배울 것이 많습니다. 6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배달 문화는 세계 최고입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무엇이든 주문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배달이 됩니다.

모국에 와서 사람을 키우고 남기는 것의 중요성에 다시 눈을 뜨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섬겼던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아주 탁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오랜 세월 동안 우정을 나누는 전병철 교수님은 아신대학교에서 탁월한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크연구소(ARCC-Align Research Center for Christianity)를 통해 한국 교회의 시대적 변화를 읽어내고 대처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리워하는 오운철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모국에 도착해서 바로 만났습니다. 두 분이 케냐로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목회서신을 쓰는 이 시간에 두 분이 케냐에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식월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와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국에서 안식하는 동안 고난주간 특새와 부활절 음악예배 그리고 어린이 부활절 잔치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기도드립니다. 성심을 다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동역자들과 아낌없는 섬김으로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모국은 아름답습니다.

구봉주 칼럼

# 믿음의 시금석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무언가를 분별하거나 판별하는 판단기준을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능하는 시금석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능하는 성경적, 교리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었던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믿기 힘든 기적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인데, 다시 살아났으니 기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부활한 대상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미국 타임지가 미국 감리교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의 46퍼센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부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짓 믿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능하는 또 다른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음을 지나치게 아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

세, 즉 천국과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천국과 영생의 확실함을 믿기 때문에 세상 것들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집회나 세미나를 인도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지금 당장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네'라고 대답하면서, 곧바로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모인 수의 10퍼센트도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왜 모두 천국을 더 사모하지 않으실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더 실제적인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떠나보낸, 성도들의 눈물에 고인을 천국에 보낸 일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는지 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은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을 보낸 슬픔의 눈물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천국이 실재임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세기 초,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

스가 쓴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를 부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아리스토텔레스의 편지로 보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자들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천국과 영생, 부활을 확고히 믿은 나머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내세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당해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부활, 죽음 외에 믿는 자의 믿음을 가능하는 시금석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금석들을 통하여, "현재 우리 자신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믿음이 아닌, 바로 지금, 현재 믿음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웹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들을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양의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예수님은 최초의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셨습니다. 잔치 집에 꼭 있어야 할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만나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시며, 주인이 하

는 말을 순종하듯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험하시듯 먼저 밖에 있는 허드레 물 담은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건 기적의 일이 아니었지만 하인들이 다 순종하니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말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갔다 주라”고 하십니다. 허드렛물을 떠다주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종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첫 기적으로 잔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고, 물 떠온 하인들은 다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지금의 나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면 아직 예수님이 내 삶에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내 안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미에서 사역할 때 볼티모어에 집회를 왔는데 한 집사님의 2층집에서 3일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크고 훌륭한 집에서 강사인 저를 머물게 하면서 ‘목사님 집처럼 여기고 지내세요!’ 하는데, 3일 내내 내 집처럼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 시간에는 부인 집사님과 어머니가 아래층에 계시고, 저녁이면 남편 집사님과 아이들까지 있는데, 부엌과 냉장고, 전화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내 집처럼 마음대로 이방 저 방, 문을 열고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내 안에 그렇게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로 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17:6) 하나님은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영적 암흑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고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사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 모듈레이션(Modulation)과 부활 찬양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지난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은 1906년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 1907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 등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웨일스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은 제시 펜 루이스(Jessie Penn-Lewis, 1861-1927)였습니다. 그녀의 평생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외치는 중요 문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처럼 그녀의 외침 속에 나타나는 핵심은 십자가 복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927년 그녀가 죽는 날까지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평생 이 십자가의 도만을 외쳤던 여 사도였습니다.

한편 그녀와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C.S. 루

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의 중심의 외침 또한 십자가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한 말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복음이 기독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을 통해 여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음악 용어 가운데 모듈레이션(Modulation)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성으로 진행되던 음악이 다른 조성으로 전조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음악을 길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성을 다른 조로 바꾸게 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게 하며 이때 그 전조로 인해 음악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복음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사실입니다. 이 세상 생이 다하면 마치 음악이 모듈레이션 되어 분위기를 바꾸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전환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 시즌에 찬양하는 칸타타 중 박지훈 작곡가가 쓴 부활절 칸타타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수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하나의 드라마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 중 피날레 곡 “예수”는 전체 이야기를 잘 축약하여 하이лай트로 전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주(introduction)를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같은 리듬과 음정을 갖고 강조하려는 오스티나토(Ostinato) 기법을 썼습니다. 특이한 것은 삼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

리의 영광을 장조가 아닌 단조(가단조, a minor)로 표현했습니다. 역설의 승리, 그리고 비장함이 감도는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주 예수의 강림과 이 세상 다 지난 후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쁨을 하이лай트로 나타내기 위해 두 편의 찬송가를 대입시켰습니다. 하나는 19세기 초반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요시아 홉킨스(Josiah Hopkins, 1786-1830)의 “주 예수의 강림(O Turn Ye)”입니다. 이것은 그가 천식으로 치료를 받던 중 생을 마감하던 해에 작사와 함께 작곡을 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19세기 후 영향을 주었던 찬송 작곡가 제임스 블랙(James M. Black, 1856- 1938)가 쓴 “하나님의 나팔소리 (When the trumpet of the Lord shall sound)”입니다.

작곡가는 이때 조성을 바꾸어 같은 이름 그러나 다른 단조에서 장조(가장조, A major)로 전환하여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더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멋있게 모듈레이션을 하는 중요한 역할이 나타납니다. 곡 중 2마디를 장조(마장조, E Major)를 사용하여 장조(가장조, A major)로 바꾸는 대단원의 전환을 줍니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를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렌부르크 수용소(Flossenbürg concentration camp)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남긴 유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다.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life”

이어서 서론 부분을 다시 도입하여 같은 방법인 단조(가단조, a minor)로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을 표현하고 마지막 “아멘”을 장조(가장조 A major)로 전환하여 완성된 승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세상은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온통 두려움과 공포들이 더욱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여 정작 지켜야 할 본질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 1874- 1936)이 쓴 책 “정통(Orthodox)”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나름의 이단을 창설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거기에 마지막 손질을 가했을 때 그것이 바로 정통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정통신앙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것은 일 년에 한 번 부활절 시즌을 맞아 기념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일 년 내내, 아니 우리의 평생의 예배 중심에, 그리고 삶의 중심에 기억되어야 할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복음적 삶을 사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모듈레이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 2023년 디카시인협회 신인상 공모

미주한인사회와 미주를 역량있는 능력으로 선도할수 있는 능력있는 디카시 창작 작품을 모집하며 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디카시인협회 신인상을 공모합니다. 디카시의 미래를 함께 미주에서 열어갈 재능있고 능력있는 신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응모:** 디카시 5편
- \* **응모기간:** 2023년 4월 15일(토) ~ 5월 15일(월)까지
- \* **발표:** 2023년 5월 22일(월)(개별 통보)
- \* **응모분류:** 아동부(유치부~초등학생), 청소년부(중학생~고등학생), 일반인(대학생~성인)
- \* **요령**
  - 1) 본인이 직접 촬영한 순수한 사진
  - 2) 사진 주제에 맞는 자신이 직접 쓴 시
  - 3) 첫페이지에 본인 실명과 영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5편의 디카시 제목을 기입해 주며, 두번째 페이지부터 사진과 그 아래 별도의 글(4줄이상 10줄 미만)을 5편을 만들어 이메일로 접수 받으시니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자격:** 미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 \* **혜택:** 입상자들은 디카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가능하며, 등단증을 발급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학생들은 디카시인협회에서 활동하며 커뮤니티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 \* **유의사항:**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표절이나 사진도용이나 모방이 밝혀질 경우 모든 당선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당선자는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한달에 한번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주최: 디카시인협회(DICAPOET ASSOCIATION), 디카시인연구소(DICAPOEM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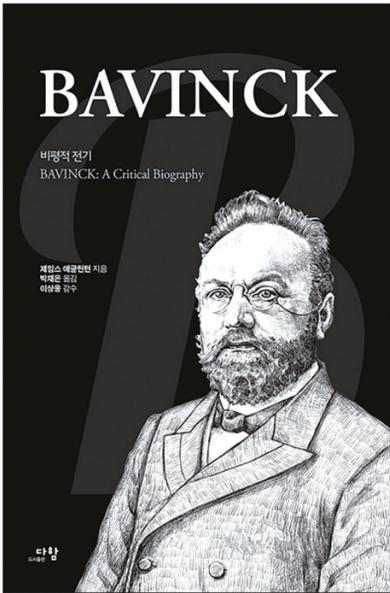
13939 BOXWOOD PL, PANORAMA CITY, CA 91402

TEL: 213-422-8916, EMAIL: dicapoet@gmail.com, dicapoeminstitute@gmail.com

이사장: 최순길, 회장: 이동규, 총무: 최경일

[크리스찬북뉴스서평]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좇다

# “신학은 교실 안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



**바빙크: 비평적 전기**  
제임스 에글린턴 | 박재은 역  
다함 | 744쪽

현대 유럽인,  
정통 칼빈주의자,  
학문의 사람

보편교회를 사랑한  
전환기의 개혁신학자

이 책은 보편교회를 사랑한  
전환기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선입견과 그가 속한 문화와 역사의 한계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 적용의 범위를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안에 확장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위 훌륭한 신학자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뛰어날야 한다. 결코 변하지 않는 참 진리를 성경에서 바르게 찾아내고 견고하게 지켜내는 일과 계속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제공하는지 설명하는 일이다.

헤르만 바빙크의 삶을 비평적으로 들여다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그가 이 두 가지 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잡힌 신학을 훌륭히 해낸 신학자라는 것이다. 그는 개혁주의 신학에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개방적이었다.

바빙크의 삶은 결코 평안하고 안정되지 않았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사회와 교회 분위기 속에서 학자, 목사, 교수, 정치인, 남편이자 아버지 등 다양한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물론 연약한 점과 실수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빙크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영역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신학적으로 뛰어났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와 신학교와 사회의 지도자였다.

제임스 에글린턴이 쓴 <바빙크 비평적 전기>는 2020년 케빈 드영에 의해 ‘올해의 책’에 선정되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전문 북리뷰어이자 강사 및 저자인 팀 찰리스도 이 책을 2020년 최고의 책 10권 중 하나로 꼽았고, TGC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천하는 책으로 선정했다.

헤르만 바빙크에 관한 관심은 2011년 부흥과개혁사에서 출간된 5권으로 구성된 <개혁교의학>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후로 평전(론 글리슨, 부흥과개혁사, 2014), <개혁과 교의학(단권축약본)>(새물결플러스, 2015)으로 국내 점차 소개되다 도서출판 다함을 통해 <찬송의 제사>(2020), <설교론>(2021), <교회를 위한 신학>(2021), <일반은총>(2021) 등 더 많은 저작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바빙크 생전에 완성되지 못했던 <개혁과 윤리학>도 존 볼트의 작업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다(부흥과개혁사, 2021).

사실 에글린턴의 바빙크 전기에서 독자들이 바빙크 신학을 충분히 맛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의 관심이 바빙크의 신학이 아니라 바빙크의 삶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는 저자가 추적하는 바빙크의 삶을 따라가면 ‘바빙크가 쓴 개혁교의학을 꼭 한 번 읽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될 것이다(그가 쓴 다른 저작들도 물론!).

당시 교의학 과목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압도한 바빙크의 신학이 무엇이었던지, 에글린턴이 그려낸 바빙크의 삶이 어떻게 그 교의학 작품에 잘 나타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진다.

바빙크의 제자들 중에서는 스승의 균형감각을 배우지 못하고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 성경은 인간의 오류가 담긴 책이라고 주장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바빙크는 그 선을 넘지 않았다.

한쪽에선 바빙크가 너무 진보적인 학자라고 공격하며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학만을 성경적인 신학으로 여긴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바빙크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기도 했고, 기독교 세계관이 무신론적 세계관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여기면서 교육을 주도하는 가르침으로 삼기 위해 애썼다.

신학은 교실 안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바빙크의 삶이 그의 교의학을 보여주는 것처럼, ‘비평



헤르만 바빙크.

적 전기’라는 방식이 물 흐르듯 읽히는 소설 같은 전기와 달라서 어떤 독자에게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임스 에글린턴의 <바빙크 비평적 전기>는 바빙크의 삶을 독자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간다.

바빙크가 삶과 신학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학과 그에 따른 삶을 발맞춰 살아갈 것인지 비평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 본질에 있어서는 좁더라도, 적용에 있어서는 넓고 자유로운 삶을 바빙크의 신학과 삶을 통해 꿈꿔보자.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요한복음 14:12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believes in me  
will do the works  
I have been doing, and  
they will do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JOHN 14:12

2023 - 2024 학년도  
**장학생 모집 공고**

기쁜우리교회  
담임목사 김 경 진  
Senior Pastor Rev. Gyeong Jin Kim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에서 크리스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 6기 기쁜우리교회 장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 신청 대상

- > 본 주소지 혹은 학교가 Southern California 인 정규 4년제 대학(원)생
- > 외국 또는 타주에서 온 Southern California 내에 있는 2년제 대학 과정에 있는 학생
- > Categories: i) General, (ii) PK & MK, (iii) Seminary

### 선발 일정

- > 신청서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 ~ 5월 31일
- > 선발 결과 발표: 2023년 8월 1일 예정
- > 장학금 수여식: 2023년 8월 20일 예정 (추후 발표)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기쁜우리교회 홈페이지 [www.joyfulccc.org](http://www.joyfulccc.org)를 통해 자세한 신청 안내 받으시고 원서접수는 [scholarship2023@joyfulccc.org](mailto:scholarship2023@joyfulccc.org)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쁜우리교회 장학위원회 (Scholarship Committee of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mailto: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서성록, 한 점의 그림 | 야곱 판 루이스달의 <유대인 묘지>

자연 세계, 하나님 계시 미술관이자 인생 진리 보는 창문

모든 육체는 풀과,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늘 아래 모든 것, 한시적이고 하나님 주권 아래  
영원한 진리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값진 일  
평생 자연 묘사 루이스달, '풍경화' 독립된 장르로

이 풍경화는 <유대인 묘지>(The Jews Cemetery, 1668-1669)를 찾은 화가가 유대인 회당을 바라보며 인생의 의미를 성찰한 것이다.

그림의 분위기는 무덤 때문인지 무겁고 스산하다. 전경의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돌무덤이 위치해 있고 중경에는 허물어져 가는 유적이, 그리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경의 폐허는 유대인 회당으로 사용되었던 곳이며, 회당에 부속된 포르투갈계 유대인들의 묘지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이 장소는 암스테르담 외곽 지역 아우더케르크 인근을 묘사한 것으로, 이 작품 외에도 이곳을 모티브로 한 몇 점의 소묘가 남아 있다.

이 그림을 제작할 무렵 야곱 루이스달(Jacob Ruisdael, 1629?-1682)은 고향 하르렘을 떠나 암스테르담으로 이주하였다. 루이스달은 하르렘 누가 길드에서 수련기간을 거친 다음 암스테르담에 진출, 이곳의 미술가들과 경쟁하면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의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게 된다.

루이스달은 실제로 암스테르담에 와서 화풍의 자극과 변화를 겪었다. 산을 모티브로 한 풍경이라든지 산림 지역 등 플랑드르 매너리즘 전통을 계승한 룬란 사버리(Roelant Savery)의 제자 알라르트 판 에베르딩헨(Alartvan Everdingen)과 힐리스 판 코닝크스루(Gillis van Coninxloo)의 뒤를 이어, 루이스달 역시 바위, 폭포가 있는 풍경 등을 모티브로 기용하였다.

그 외에도 빛을 기용한다든지 강렬한 표현이 두드러진다. 하르렘 스쿨(Haarlem school)의 사실주의에다 플랑드르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접목시키는 화풍을 개척하였다.

이 그림은 모티브의 특성상 판 만더(Karl van Mander)의 '인간 삶의 알레고리(Allegory of the Life of Man)'와 맞닿아 있다. 판 만더가 말한 '지상적 삶의 덧없음'에 공감한 그는 풍경 속에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농축시켰다.

그러한 측면은 도상을 에워싸고 있는 상징적 요소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모든 이미지가 알레고리의 배열 속에 쌓여 있는데, 부러진 나무와 거친 물살은 삶에 도사리는 위협을, 석관은 죽음을, 폐허는 과거의 영화를, 먹구름은 불안과 두려움을 각각 상징한다.

미술사학자 W. 비칸트(W. Wiegand)는 루이스달이 묘사한 유대인 석관에 대해 그것을 프롱크(pronk) 즉 '외형적 과시'로 해석하면서 그림 주제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언급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걸어오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 2:27)라는 경고로 보았다.

그러나 이 작품이 긍정적인 기독교적 확신을 주지 않는다고 본 비칸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바니타스 이미지는 판 만더의 '인간 삶의 알레고리' 텍스트에서 드러나듯,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림에는 석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흥흥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멀리 무지개가 피어 있으며, 어둠을 뚫고 나온 빛줄기 등은 어떤 경우든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나타낸다.

무덤 주위에 검은 예복을 입은 세 인물은 폐허가 된 건물 앞, 즉 그림의 중앙에 배치해 의도적으로 강조했다. 한 사람은 죽은 자를 추모하는 듯 묘비 주위에 앉아 있고, 어린이 곁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인물이 서 있다.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인물에게 모아진다. 서 있는 인물은 손가락으로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자세는 마치 렘브란트의 <설교자 안슬로>(The Mennonite Minister Cornelis Claesz Anslor in Conversation with his Wife, 1641)에서 보듯 성경을 가리키며 여인을 위로하는 포즈를 취한다.

이 그림은 바는 맥락상 바니타스와 연결돼 있다. 그는 지상의 것들이 곧 사라진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 이 그림의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 1:23-24)"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존 월포드(John Walford)는 유대인들의 무덤에 대해서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롬 8:21)"에 이르는 메시지에 기대어 사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승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원거리에서 보면 이 그림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의 항구적인 불연속성과 인간의 삶을 포함하여, 식물의 탄생과 소멸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림 배경을 보면 금세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잔뜩 찌푸린 하늘을 볼 수 있다. 일찍이 화가의 탁월함에 주목한 괴테(Geoth)는 날씨의 주요한 변화, 위협적인 모습, 시커먼 구름은 '이미지의 언어'로는 어색한 것이면서도 "순수한 감정, 명료한 사고의 예술가가 완벽



야곱 판 루이스달, 유대인 묘지, 1668-1669, 캔버스에 유채, 84x95cm.



렘브란트,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 참나무 위에 유채, 83.8x65.4cm, 1644(일부).

한 상징주의를 성취했다"고 감탄했다.

그런데 그러한 괴테도 놓친 것이 있었다. 바로 먹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이다. 루이스달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을 등장시킨 작품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렘브란트의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1644)에서는 유대 회당에 은혜의 빛줄기가 내려지고 있으며, 예칭 <세 십자가>(1653)에서는 하늘로부터의 위로가, 그리고 <내시의 세례>(1640)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빛을 통해 묘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루이스달도 렘브란트와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 지상의 것들이 썩어짐과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늘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가들은 풍경을 그리면서 풍경 자체에 매료되는 경우가 있지만, 루이스달은 어떤 자연물도 결코 자신의 피조성(creaturehood)을 넘어서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에게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계시하는 미술관임과 동시에 인생 진리를 바라보는 창문이었다.

그는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깨달았던 것 같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속히 지나갈 뿐이므로, 영원한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값진 일임을 말하려 하지 않았을까?

야곱 판 루이스달은 마을 풍경, 바다 풍경 뿐 아니라 폐허나 풍차, 참나무 같은 소소한 것까지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를 즐겨 화폭에 담았고, 평생을 자연을 묘출하는 작업에 매진한 결과 풍경화를 역사화처럼 독립된 장르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호버마(Meindert Hobbema)와 케셀(Jan van Kessel) 등이 루이스달의 뒤를 이어 풍경화가로 활동하였다.



서성록 교수  
안동대 미술학과



**심성이 하면 다릅니다.**

HOLLYWOOD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100%  
Made in  
USA**



SCAN ME



Lic#854389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50~7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50~7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50~7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http://www.btssolardesign.com)

CELLSPARTNER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